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 당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3. 28.(화) 11:00 < 3.29.(수) 조간 > 배포 2023. 3. 28.(화)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전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포럼) 개최

- 산업부·국제통상학회 '제1차 신(新) 자유무역협정(FTA) 전략포럼'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수출여건 악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FTA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신FTA 전략포럼을 출범하고, 3.28.(화)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 전략」을 주제로 1차 신(新)FTA 전략포럼을 개최* 하였다.

* 참석자 :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송백훈 국제통상학회장(공동 주재), 박지형(서울대), 서정민(숭실대), 성한경(서울시립대), 이한영(중앙대), 장용준(경희대), 정재욱(서강대), 정주영(경희대), 김규판(KIEP), 정철(KIEP) 등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국과 연대 강화, 동반 성장 등을 위한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며, "새롭게 추진하는 무역협정은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적 FTA에 공급망, 청정경제, 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 협력 요소를 가미한 경제동반자협정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백훈 국제통상학회장은 "최근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자국 중심의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신흥국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제동반자협정은 경제 우방국 확보를 가능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재욱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EU는 아프리카와 EPA 추진 시 상호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비대칭적 시장개방을 허용"했다면서, "정부도 기존의 포괄적이고 고도화된 방식의 협정을 고집하기보다 상대국 여건에 따라 탄력적이고 유연한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경제동반자 협정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며, 연내 주기적으로 신FTA 전략포럼을 개최하여 국제 통상환경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FTA 전략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안창용 (044-203-5740)
		담당자	사무관	박용균 (044-203-574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